

서문

7구역 - 당신의 상상공간

김성호(APAP7 예술감독)

I. 프롤로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해서 3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공공예술 축제입니다.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7)》는 안양시 승격 50주년과 발맞추어 2023년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70일간의 일정으로 국내외 24개국 48팀, 88인 출품 작가의 작품과 함께 안양예술공원 및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APAP7은 이전 행사에서 제기되었던 공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합니다. 공원 환경 속 통합형 공공예술(APAP1, 2005, 이영철 감독), 도심 공간에 침투한 공공예술(APAP2, 2007, 김성원 감독), 시민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공공예술(APAP3, 2010, 박경 감독), 기존 작품의 보수와 재점검을 도모한 아카이브형 공공예술(APAP4, 2013/14, 백지숙 감독), 복합 및 다 장르의 공공예술(APAP5, 2016, 주은지 감독), 그리고 인간, 테크놀로지, 도시의 공생을 도모하는 공공예술(APAP6, 2019 김윤섭 감독)을 비판적으로 점검, 계승합니다.

이 글은 올해 APAP7가 선보이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고 프로젝트 구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II. 주제 해설

APAP7은 '7구역 - 당신의 상상공간(ZONE 7 - Your Imaginary Space)'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의 공공예술을 '상상의 공간'이라는 개념 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제에서 추출되는 '7구역, 당신(의), 상상공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주제어	개념	해설
7구역	상징	현실(1~6구역)에서 꿈꾸는 상상(7구역)의 공공예술 행운, 희망의 포지티브 공공예술 '상상공간'의 상징과 메타포
당신의	공공의	당신 → 여러분 → 우리 → 공공 공공예술의 창작 주체를 관객과 시민으로 확장하는 공공예술 문화민주화로부터 문화민주주의로 확장하는 예술공론장
상상공간	생산적 상상	상상의 공간, 상상력의 공간 헤테로토피아 - 현실에 존재하되 다른 공간인 '현실화된 유토피아'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생산적 상상'의 공간 안양예술공원과 (구)농림축산검역본부

[fig. 1] 주제 해설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세 개의 주제어를 역순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제1 주제어 '상상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대개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로 풀이되는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보는 힘"으로 풀이되는 '상상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만 상상과 상상력 모두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심상(心像)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정신작용"으로 해석되면서 현실의 지평에서 출발하되, 상상의 영어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의 의미처럼 '현실 너머의 어떠한 무엇을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누구나 간접 경험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상상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불로장생에 대한 상상 혹은 금을 만들고자 했던 연금술처럼 '현실의 지평에서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이미지화'하는 상상, 상상력은 창의성과 종종 연관되면서 오늘날에도 시각예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상상은 현실의 지평에서 발아됩니다. 공상이 현실과 분리된 것이라고 할 때, 공상이라는 상상은 현실을 만나 상상으로 발전하고 결국 현실이 됩니다. 물론 현실화되지 못한 채 공상으로 오랫동안 남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현실이 됩니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상상이 비행기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상상이 인터넷으로 현실화된 것처럼 말이지요.

이처럼 상상은 현실이 되는 가능성을 잉태한다는 점에서, 안양이란 도시를 무대로 공공예술을 전개하려는 '상상공간'이라는 주제어는 상상으로 잉태한 공공예술 기획이 현실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 주제어는 마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의 공간과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다른(hétéros)'과 '장소(topos)'가 결합한 용어로, 푸코에 의하면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이지만, 기존의 공간들에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들을 전도시키는 장소'로서, 개념적으로 다른 곳을 가리키거나 모든 장소의 바깥을 지칭합니다. 달리 말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있지만, 실재하는 장소의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공간',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 또는 '반공간(contre-espace)'으로 표상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실제의 유토피아' 혹은 '국지화된 유토피아(utopies localisées)'로 더 간단히 '현실화된 유토피아'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현실 반, 상상 반'인 이러한 헤테로토피아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실과 상상에 걸쳐 있는 헤테로토피아를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존재 양태와 방식은 역사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 있다가 도시 경계로 이동한 '묘지'나, 모든 과거를 한 장소에 축적하여 아카이브를 만든 '박물관, 도서관'은 시간 속에서 변화한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생성된 해수욕장과 같은 '휴양지'는 전통적인 시간과 단절하고 헤테로크로니아(hétérochronie)로 불리는 '새로운 시간대 출현'을 이끄는 헤테로토피아입니다. 공간의 관점에서, 헤테로토피아는 마치 여행자를 위해 문이 수시로 여닫히는 '옛 미국식 모텔'처럼 개방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그것은 복수 공간을 하나의 공간에 집적한 '극장, 영화관'이나 인공과 자연의 이질적 요소들이 혼성된 '페르시아 정원'처럼 혼성의 공간을 구축합니다. 푸코의 입장에서, 역사가 '지금'의 시간적 타자였다고 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여기'의 공간적 타자를 표명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966년 푸코가 한 라디오 강연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헤테로토피아의 본질은 부모의 침대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은 어린이의 행위처럼 권력화된 기존의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일탈의 실천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낸시 스펙터(Nancy Spector)가 거론했듯이, 맨해튼 거리의 광고판에 예술가의 내밀한 '빈 침대 사진'을 게시한 곤살레스-토레스(González-Torres)의 작품 <무제>처럼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침탈하는 것과 같은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ologies)의 위상학을 실천합니다. 이처럼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공간에 대해 적극적 변주를 실천하는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질서를 재조직합니다.

APAP7는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차용한 주제어인 '상상공간'을 안양예술공원과 (구)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공예술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휴양지로만 기능하다가 현재는 공공예술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오랫동안 폐쇄된 유휴 공간이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변화되어 공개되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는 '헤테로토피아' 혹은 '상상공간'의 상징적 메타포로 훌륭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APAP7은 이 두 공간에서 '순차적인 연대기가 와해된 헤테로크로니아의 시간, 전통적인 시간의 단절과 중첩, 열림과 닫힘의 체계 그리고 예술, 건축, 자연, 환경이 함께 하는 복수의 겹친 공간'의 개념과 더불어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헤테로토피아와 같은 '생산적 상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2 주제어 '당신(의)'**을 살펴봅니다.

이 주제어는 '당신 → 여러분 → 우리 → 공공'으로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을 내포합니다. 즉 당신이라는 주제어가 확장하는 '우리 혹은 공공'이라는 의미는 순수한 고급 예술의 향유가 어느 지역, 연령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 예술 수용의 문제'에서 제기된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를 넘어서 일반 대중 혹은 시민을 문화, 예술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문화 예술 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생산 주체로 바라보려는 문화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를 지향합니다. 문화민주주의는 프랑스에서 1981년 문화부장관으로 취임한 '자크 랑(Jack Lang) 시대'(1981 ~ 1993)에서 추진했던 문화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주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문화, 예술을 통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기조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예술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일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전에 문화 예술 생산에서 소외되었던 수용자를 능동적 주체로 등극시킨 개념입니다.

APAP7은 공공예술의 향유에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예술(Public Art for everybody)'을 통해 '예술민주화(Artistic democratization)'를 실현하려는 관점 자체를 방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관람객과 시민이 예술 콘텐츠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 의한 공공미술(Public Art by everybody)'이라고 하는 예술민주주의(Artistic democracy)를 성취하는 것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구체적으로 APAP7은 예술가와 관람객,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예술 생산의 공동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메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뿐만 아니라 프레 프로젝트, 포스트 프로젝트에서 펼쳐지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예술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편 제2 주제어, '당신'은 '우리, 공공'으로 확장되면서 '예술공론장(public sphere of art)'을 지향합니다.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18세기 프랑스의 살롱이나 영국의 커피하우스를 모델로 공론장(Öffentlichkeit, public sphere) 개념을 제시했듯이, 공론장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장이자, 메시지의 일방 전달이 아닌 메

시지의 쌍방 소통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공론장은 라디오, TV, 신문과 같은 미디어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재현적 공론장'으로부터 벗어나 인터넷, SNS, 가상현실과 같은 뉴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차별성과 독창성이 경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적 공론장'이라는 '새로운 공론장'의 시대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APAP7은 야외 전시, 실내 전시, 온라인 전시 등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구축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뿐만 아니라 아트 살롱과 아트 라이브러리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적 공론장'을 '지금, 여기'의 물리적인 두 곳의 장소와 온라인의 비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3 주제어 '7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숫자 7을 '행운의 메타포와 상징'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는 창조주가 6일간 만물을 창조한 이후 7일째 안식했다는 기독교 전승에 따라 7을 행복과 안식을 위한 숫자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속설에 따르면, 숫자 7은 하늘의 완전수인 3에 지상의 완전수인 4를 더해 만들어진 숫자라는 의미에서 최대 완전수로 꼽기도 합니다.

APAP7에서 제시하는 제3의 주제어 7구역은 이러한 행운, 희망, 완전수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유합니다. 물론 7구역은 무엇보다 7회째에 이른 APAP7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7구역은 1~6구역을 현실적 공간으로 전제하면서 '현실에서 꿈꾸는 새로운 상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상공간'의 상징이자 메타포로 자리합니다. 즉 7구역이라는 주제어는 곧 '당신의 상상공간이자, 우리의, 공공의 상상공간'이 됩니다.

한편 이 주제어 7구역은 이전의 공공예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AP7에서 요청하는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생산적 상상'이라는 개념과 연동합니다. 현실의 문제적 담론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상상으로서 말입니다.

III. 프로젝트 구성

APAP7은 위에서 제시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라는 종적, 횡적 구성을 시도하고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다 장르의 공공예술과 더불어 관객이 함께하는 문화민주주의 혹은 예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구성을 일별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프레 프로젝트	메인 프로젝트	포스트 프로젝트
커뮤니티 프로그램 - 아트 캠프 - 아트 페스 - 비주얼 아카이브	야외 전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 APAP7 프렌즈
	실내 전시	
시민/전문가 사전 간담회	온라인 전시	시민/전문가 사후 평가회

[fig. 2] 프로젝트 구성

위의 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첫째, **시간을 고려한 종적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APAP7은 전체 프로젝트를 시간대별로 '프레 프로젝트 - 메인 프로젝트 - 포스트 프로젝트'

로 구성했는데, 여기서 프레 프로젝트, 포스트 프로젝트는 역대 APAP와 달리, 행사 기간 이전과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프레 프로젝트'는 성공적 행사를 위해 2회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민/전문가 사전 간담회'와 더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시민/전문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메인 프로젝트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작가 참여를 위한 공모제와 비미술인의 많은 참여를 열어 두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안양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아트 캠프', 안양 재개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가림막 미술로 기획한 '아트 펜스', 안양 예술 생태계를 아카이빙하고 시각화한 '비주얼 아카이브'로 구성했는데, 여기에도 '시민/전문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주신 많은 분의 의견을 수용, 적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8월 25일 개막하는 메인 프로젝트에 전시 형태로 재공개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포스트 프로젝트는 APAP7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적 행사를 도모하는 '시민/전문가 사후 평가회'와 청년 활동가들의 비평적 장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APAP7 프렌즈'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메인 프로젝트가 종료한 이후 많은 분의 엄중한 평가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만들어 향후 APAP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평가회 자리입니다. 후자는 문화 예술 분야의 청년들을 공모, 선발해서 APAP7의 프로그램들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서포터즈'와 '비평적 정신을 함양한 청년 예술 활동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스트 프로젝트와 프레 프로젝트 사이에 공식 행사 일정 동안 진행되는 메인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공간을 고려한 횡적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APAP는 안양의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공공예술의 단계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갤러리로 만들어 가는 APAP는 그동안 야외에서 펼쳐지는 공공예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APAP7 또한 건축형 모뉴먼트와 대형 조각 중심의 APAP의 야외 전시 전통을 계승하는 건축형 파빌리온, 설치적 조각, 하천변 부조형 조각, 무대와 혼성된 공공예술, 임시적 구조물 등도 선보입니다.

APAP7은 이러한 야외 전시를 도모하면서도, 야외 중심의 공공예술 담론과 실천의 중심축을 APAP7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 규모의 실내 전시로 이동합니다.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활용해 거대 규모의 실내전을 도입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도시 재생을 통한 유휴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최근의 공공예술의 지향점을 극대화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까지 야외에서 펼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공공예술의 담론을 실내 공간에서 다양하게 펼쳐 보이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서랍, 박스, 장롱, 구석, 집'과 같은 '감쌈의 공간'을 요나 콤플렉스(Jonah Complex)의 공간으로 해설하는데, 이것은 구약성서의 등장인물인 요나가 거주했던 고래의 배 속처럼 안온함과 평화로움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예술 공간화한 실내 전시장은 요나 콤플렉스와 같은 긍정적인 메타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선보이는 장이자 대중에게 공공예술을 친근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공공예술 아카이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견인하는 커뮤니티 아트, 공론장 개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작품이나 개념미술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시를 함께 펼쳐 보입니다. 특히 실내 전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의 담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전시 공간을 '휴먼 스페이스 - 에코 스페이스 - 스마트 스페이스'로 범주화하고 인간, 생태, 테크놀로지가 함께 공생하는 오늘날 도시의 공공예술 담론을, 그동안 야외 공공예술로 소개하기 어려웠던 퍼포먼스,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커뮤니티 아트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작들로 추적하고 성찰합니다.

한편, APAP7은 APAP 전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APAP7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APAP7의 모든 작품작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실감 나는 동영상과 함께 상세한 콘텐츠를 아카이브로 구축한 온라인 전시를 대대적으로 펼쳐 보입니다.

따라서 APAP7은 야외 전시에 덧붙여 대규모 실내 전시와 온라인 전시를 병행하는, '야외 - 실내 - 온라인'의 트라이앵글 형식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다 장르 예술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APAP7은 1회부터 6회에 이르기까지 모색해 왔던 건축형 파빌리온, 구조적 모뉴먼트, 공공조각, 커뮤니티 아트, 무형의 콘텐츠 예술 등 다양한 공공예술 경험과 노하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오늘날 융합과 통섭이 교차하는 '다 장르' 또는 '다원주의 예술'의 유형을 공공예술에 반영합니다. 즉 기존의 '장소로서의 미술 또는 장소 속 미술'이라는 공공예술의 익숙한 개념뿐만 아니라 1991년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주장한 '뉴 장르 공공예술(New Genre Public Art)'로 표방되는 퍼포먼스, 설치, 개념미술 등 관객이 주체가 되는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공예술을 야외와 실내의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이처럼 APAP7은 장소에 놓이는 하드웨어 형 공공예술뿐만 아니라 장소에서 펼쳐지는 소프트웨어 형 공공예술의 모든 유형을 두루 포함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공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공예술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넷째, **문화민주주의, 예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콘텐츠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에 관해서는, 이 글의 'II장 주제 해설'에서 살펴본 '제2 주제어, 당신'과 더불어 'III장 프로젝트 구성'에서 살펴본 '시간을 고려한 종적 구성'에서 이미 개괄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메인 프로젝트 전후에 진행되는 프레 프로젝트, 포스트 프로젝트에서 많은 부분 문화민주주의, 예술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콘텐츠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메인 프로젝트에서도 관객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참여 작가와 함께 작품을 완성해 가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독서, 휴식, 프로그램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인 '아트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연합한 '아트 살롱'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APAP7은 부대행사로 '국내외 학술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부대행사 또한 많은 부분 시민 관객이 단순한 수용자로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참여자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특히 '강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청중을 초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연자가 지역의 대학을 찾아가는 맞춤형 강연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고, '투어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감독과 전문 도슨트가 가이드로 나서서 대중과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V. 에필로그

글을 마칩니다. 1967년 존 윌레트(John Willett)의 '도시 속 예술(Art in a City)'에서 논의된 이래, 1991년 수잔 레이시의 '뉴 장르 공공예술'을 거쳐 오늘날 '도시 디자인, 콘텐츠 예술, 전유와 지역 재생'에 이르기까지 공공예술의 담론과 그 지형은 다양한 실천적 노력과 함께 확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APAP7는 지금까지의 많은 공공예술 담론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역대 APAP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공과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실험하는 미래 지향적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APAP7은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는 공공예술뿐만 아니라 주제 '7구역 - 당신의 상상공간'을 통해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도시 속 새로운 상상공간'을 탐구하는 공공예술을 제시합니다. 즉 APAP7은 야외, 실내, 온라인에서 상상공간과 관련한 주제를 선보이면서 이전의 것에 기초하되 '새로운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생산적 상상'을 시도합니다.

APAP7의 대표적 특징을 몇 가지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랫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유희공간인 (구)농림축산검역본부를 개조하여 대규모 실내 전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논쟁적 공공예술 담론을 실험하고 확장, ② '프레 프로젝트 - 메인 프로젝트 - 포스트 프로젝트'의 순차적 구성을 통해 행사 기간 전후에 걸쳐, 지속적인 대중 참여와 공개적 행사 도모, ③ 지역 작가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공공예술을 실험하고 지역 예술을 활성화, ④ 시민 참여 확대와 배리어 프리, 취약 계층의 적극적 참여를 견인하는 '문화예술민주주의'와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공예술프로젝트' 지향, ⑤ 국내외 기관과의 다양한 유형의 MOU 체결과 후원, 협찬을 통해 APAP7의 외연 확장, ⑥ 온오프라인의 홍보 다각화를 통해 APAP의 인지도 고취.

물론, 위에서 기술한 몇 가지 특징이 APAP7만의 성과라고 자평할 순 없습니다. APAP가 그동안 선보여 온 공공예술의 많은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공공예술의 이상적 담론을 현실의 장에서 올곧게 실천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상을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매번 곱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APAP7을 열심히 만들었으니 이제 잘 진행하고 또 잘 마무리하는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7구역 - 당신의 상상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열심히 준비하고 선보인 APAP7은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나름의 공과에 대한 많은 분의 엄중한 평가를 기다립니다. ●

Preface
Zone 7: Your Imaginary Space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of APAP7)

I. Prologue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is Asia's largest public art festival, and is organized by the City of Anyang and hosted by the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every three years.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Anyang's promotion to a city, the 7th APAP (hereinafter, "APAP7") will be held from August 25 to November 2, 2023, for a total of 70 days, and will feature works by 88 artists and 48 teams from 24 countries, in the area of the Anyang Art Park and the form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PAP7 both contemplates and critically inherits the variou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dentified in previous projects. It will both critically reevaluate and build on the themes of the previous 6 projects: Public art integrated into park environments (APAP1, 2005, curated by Young Chul LEE), public art penetrating into urban spaces (APAP2, 2007, curated by Sung Won KIM), community art-type public art that promotes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PAP3, 2010, curated by Kyong PARK), archive-type public art that promotes the repair and reexamination of existing works (APAP4, 2013/14, curated by Jee-Sook BECK), complex and multi-genre public art (APAP5, 2016, curated by Eun Gie JOO), and public art that fosters a symbiosis of humans, technology, and the city (APAP6, 2019, curated by Yoon Sub KIM).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theme to be addressed by this year's project, the composition of the project, and its significances.

II. Theme overview

APAP7 aims at constructing urban public art based on the concept of imaginary space under the theme of "ZONE 7 – Your Imaginary Space." The table below summarizes the main ideas of the theme using three subject terms extracted from the theme, that is "Zone 7," "your," and "imaginary space."

Subject term	Concept	Description
Zone 7	Symbol	Public art of imagination (Zone 7) dreamed of in reality (Zones 1-6) Positive public art of luck and hope Symbol and Metaphor of "imaginary space"
Your	Public	You → us → public Public art that expands the subjects of public art creation to viewers and the public Artistic public sphere that evolves from cultural democratization to cultural democracy
Imaginary Space	Productive imagination	Space of imagination, space of imaginative power Heterotopia: a "realized utopia" that exists in reality but differs from real spaces Space of "productive imagination" that creates something new by reconstructing past experiences Anyang Art Park and form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fig. 1] Theme Overview

To facilitate our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theme, this article elaborates on each of the three subject terms in reverse order.

The first one to look at is **"Imaginary Space."**

"Imagination," which is usually defined as "the act of recalling thoughts that once occurred or coming up with new images without external stimuli," also has the meaning of "imaginative power," which is defined as "the power of seeing a phenomenon or an object in one's mind without actually experiencing it." However, both imagination and imaginative power are interpreted as "the mental activity of reorganizing images obtained from past experiences into new forms," which departs from the horizon of reality, but arrives at the point where it creates images of something beyond reality. Whether it is the imagination of death, which most of us can only approach through second-hand experience, the imagination of immortality to overcome death, or alchemic endeavors to create gold, imagination or imaginative power which "images something that is not here now on the horizon of reality" is often associated with creativity, a keyword that is often discussed in the visual arts today.

Imagination germinates on the horizon of reality. While fantasies are detached from reality, imaginings combine with reality to eventually become part of it. Of course, some imaginings remain fantasies forever, lacking connection with reality, but in most cases, imaginings are brought to realization, just as the human imagination of flying in the sky led to the creation of airplanes, and that of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anyone in the world led to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A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reality is inherent in imagination, the theme of "Imaginary Space," which aims at developing public art projects in the city of Anyang, envisions a future in which public art ideas conceived through imagination take root in reality.

What must be considered here is that this theme is linked to the concept of *hétérotopie*, elaborated by French philosopher Michel Foucault, who sought to find a utopia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The term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hétéros" (other) and "topos" (place), and according to Foucault, it refers to conceptually "other" places, or the outside of all places, as places that clearly exist in reality but confront and overthrow existing spaces. In other words, heterotopias are represented as "other spaces" which are present in reality but in the outside of places that exist, "absolutely different spaces" from all places, or "contre-espace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Foucault translates heterotopias as "utopias in reality" or "localized utopias (utopies localisées)," or as "realized utopias," more simply.

However, where in the world are these heterotopias, these "half-real, half-imagined" places?

Heterotopias straddle reality and imagination and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s of time and space. According to Foucault, forms and modes of being have changed throughout history. One example of heterotopias manifesting themselves as changes over time is cemeteries that were once located in urban centers and then later moved to the outskirts of cities. Another example is how museums and libraries function as archives with all the records of the past accumulated in one place. Conversely, a "heterochrony(hétérochronie)" is a heterotopia that breaks with traditional time and drives the "emergence of a new time zone," such as a temporarily created vacation spot on a beach. In terms of space, a heterotopia constructs a system of openness as seen in old American motels where the doors open and close for travelers at any time of the day. It also establishes a clustered space such as a theater where multiple spaces are integrated into one space, or a hybrid space such as a *Persian garden* where disparate elements of the artificial and natural are mixed together. For Foucault, if history is the temporal other of the "now," then a heterotopia is the spatial other of the "here."

An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Foucault made during a 1966 radio lecture, is that the essence of a heterotopia involves the practice of "deviation," which makes a new space out of an existing one that has been placed under power, as in the act of a child who uses his parent's bed as his own playground. As the art historian Nancy Spector points out, it puts the topology of heterotologies(hétérotopologies) into action, diverting public space into private space. González-Torres's work *Untitled* features a photograph of the intimate space of the artist's "empty bed" on the billboards of Manhattan. In this way, heterotopias open up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taking place, and they bring about new orders through heterotologies that actively transform existing spaces.

APAP7 aims at building "imaginary spac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heterotopia in the form of public art in Anyang Art Park and the form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ne place that will serve as an effective metaphor for heterotopia- or an imaginary art space- is Anyang Art Park, which has been transformed from a simple

recreation area into a place where public art and nature coexist in harmony. Another is the former APQA, which has been closed for a long time and is now open to the public as a new art space. In these two spaces, APAP7 will practice "productive imagination". This practice is represented by the concept of heterotopia, which reconstructs past experiences to create new ones. This practice of using "productive imagination" will take place by incorporating concepts of heterochrony's time in which sequential chronology collapses, disruption and overlaps of traditional time, and the process of opening and closing, as well as multiple overlapping spaces where art, architecture, nature, and the environment are brought together.

Now, let us look at the second subject term, **"You."**

This word implies a conceptual shift that extends from "you → us → the public." The concept of "we" or the "public," which is expanded from the concept of "you," pursues a "cultural democracy" (*démocratie culturelle*), which sees the general public or citizens not as mere recipients of culture and art, but as produc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culture and art. This goes beyond the concept of "cultural democratization" (*démocratization culturelle*), which originated from the issue of cultural and artistic reception and underlines that no region or age group should be marginalized in its enjoyment of purely high-quality art. Cultural democracy was a key concept that provided a new policy direction for cultural development in France during the era of Jack Lang (1981-1993) who was appointed Minister of Culture in 1981. This concept elevated the recipients, who had previously been marginalized in cultural and artistic production, to the status of active agents, in line with the policy goal of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through culture and art, which puts an emphasis on the need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the critical role of art in achieving social cohesion.

APAP7 does not discard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artistic democratization" through "public art for everybody" where no one is left out of the enjoyment of public art. In addition, it simultaneously aims at achieving artistic democracy, or "public art by everybody," through various community programs in which visitors and citizens participate as the main actors in the creation of artistic contents. Specifically, APAP7 seeks to put into action such cultural and artistic democracy through various community art programs as part of its main projects, wherein artists and visitors and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become the co-subjects of art production, along with community programs as part of pre and post projects.

Meanwhile, the second subject term, "you," expands to include "we" and the "public," pursuing the creation of the "public sphere of art." As German philosopher Jürgen Habermas suggested the concept of "Öffentlichkeit" (public sphere), modeled after the 18th century French salons and English coffeehouses, the public sphere is a place where everyone is involved in communication, without distinction between experts and non-experts, and where messages are exchanged in a two-way rather than a one-way manner. Today's public space has moved from a "reproductive public sphere" that

reproduces the order of media such as radio, TV, and newspapers to an "expressive public sphere" where differences and originalities are competitively manifested through new media systems such as the internet, SNS, and virtual reality. APAP7 works towards building a space that is open to everyone, featuring indoor and outdoor exhibitions, as well as online exhibitions, and presenting an "expressive public sphere" through various programs such as art salons and art libraries, in addition to various community art programs, both in the physical here-and-now spaces and in non-physical, online spaces. Finally, what is "**Zone 7**," the third subject term, about?

We often regard the number 7 as "a metaphor and a symbol of good luck". In the West, the number seven is viewed as a number of happiness and rest, based on the Christian belief that the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after completing all his work of creation in six days. In addition, it has been traditionally said that the number seven is the most perfect number, since it was created by adding the heavenly perfect number three to the earthly perfect number four. The third subject term of APAP7, "Zone 7," connotes these positive meanings of luck, hope, and perfection. Of course, Zone 7 first and foremost refers to APAP7, which has reached its seventh anniversary, but it also stands as a symbol and metaphor for "imaginary space" in that it is a "new imaginary space that is dreamed of in reality" while presupposing Zones 1 to 6 to be realistic spaces.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Zone 7" extends to "your imaginary space, and our own and a public imaginary space."

Meanwhile, the theme of "ZONE 7" is linked to the concept of "productive imagination that reconstructs past experiences into new ones," which APAP7 seeks to solve multiple problems raised by previous public art. It is an active imagination that seeks out a realized utopia to address the problematic discourses of the present.

III. Project Compos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alize the themes presented above, APAP7 has made an attempt to organize the entire project into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and curate the project with contents in multiple genres of public art that practice cultural democracy or artistic democr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iewers. The table below presents the composition of the project.

Pre Project	Main Project	Post Project
Community Programs - Art Camp - Art Fence - Visual Archives	Outdoor Exhibitions	Community Programs - APAP7 Friends
	Indoor Exhibitions	
Citizen/Expert Pre-Conference	Online Exhibitions	Citizen/Expert Post-Conference

[fig. 2] Project Composition

A brief overview of the contents follows.

First, the contents have been organized in a **longitudinal direction in terms of time.**

APAP7 has organized the entire project in a sequential order: Pre Project, Main Project, and Post Project. This year, unlike in previous years, the Pre Project and Post Project are openly accessible before and after the event, respectively.

The Pre Project, which was carried out from 2022 to the first half of 2023, consisted of "Community Programs" in addition to the "Citizen/Expert Pre-Conference", which took place twice to collect the opinions of experts and the public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The meetings helped us to actively accept the opinions of many people, and partially revise our plans for the Main-Project. For example, we developed a competitio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artists, and a new program that was open to non-artists. The Community Programs consisted of "Art Camp," an educational progra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nyang; "Art Fence," which was planned as a barrier art work that communicates the story of the redevelopment area in the city; and "Visual Archives," which archived and visualized the art ecosystem of the city. Opinions collected from the Citizen/Expert Pre-Conference we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se programs. Notably, the Community Programs will be reopened in the form of an exhibition for the main project, which will be launched on August 25, as a reminder of the meaning of the project.

The Post Project, which will take place until December 2023, consists of the "Citizen/Expert Post-Conference" to assess the results of APAP7 and promote the future advancement of the event, and "APAP7 Friends," a community program that functions as a critical forum for young activists. The former is an evaluation meeting to carry out a strict assessment of the project after its comple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many people,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APAP in the future. The latter is a program to recruit young people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to APAP7's programs, and foster them as voluntary and active supporters and young art activists with a critical outlook.

In between the post project and pre project is the main project, which runs during the official event schedule.

Second, APAP7 also features a **transversal composition in terms of space.**

APAP is a project to "turn the city of Anyang itself into a gallery." In an effort to transform the physical space of the city into an open gallery through a phased public art project, APAP has historically focused on outdoor public art.

Succeeding APAP's tradition of outdoor exhibitions centered on architectural monuments and large-scale sculptures, APAP7 also presents architectural pavilions, installation sculptures, relief sculptures near stream, public artworks combined with performance stages, and temporary structures.

While promoting these outdoor exhibitions, APAP also shifts the axis of public art discourse and practice from outdoor exhibitions to large-scale indoor exhibitions, a first in APAP's history. This new attempt is highlighted by a huge indoor exhibition to be held at the form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which had been left idle for a

long time. This exhibition maximizes the orientation of today's public art that strives to revitalize idle spaces through urban regeneration. With these efforts, APAP7 plans to expand the discourse of public art, which has faced limitations in terms of full-scale implementation outdoors, in indoor space.

French philosopher Gaston Bachelard describes "enveloping spaces" such as drawers, boxes, wardrobes, corners, and houses as spaces of the Jonah Complex, meaning spaces surrounded by tranquility and peace, like the whale's belly that surrounded Jonah in the Old Testament story. The indoor exhibition space, which was turned into an art space from the form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will serve as an effective platform to present positive metaphors such as the Jonah Complex to the public and to make public art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indoor space will accommodate various types of exhibitions that encompass public art archives, community art projects that actively engage the public, cultural programs that put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into practice, and even small-scale works or conceptual art works. Notably, these indoor exhibitions, reflecting on the discourse of a sustainable future city, categorize the exhibition space into "Human Space – Eco Space – Smart Space" and trace and contemplate the public art discourse of today's city, where humans, nature, and technology coexist with exhibits in various artistic genres, including performance, painting, sculpture, installation, media art, and community art works, which have been difficult to introduce in the form of outdoor public art projects. Meanwhile, in addition to the official website that APAP has operated, an exclusive website for APAP7 is being launched, on which every entry will be unveiled in the format of an online exhibition accompanied by an archive of detailed contents including immersive videos, to provide visitors with a viewing experience that is as realistic as actually being at the event.

In other words, APAP7 aims at building a trinity of Outdoor Exhibitions, large-scale Indoor Exhibitions, and Online Exhibitions for public art projects.

The third feature is **multi-genre art composition**.

APAP7 critically accepts various public art experiences and know-how spanning various domains including architectural pavilions, structural monuments, public sculptures, community art, and intangible content art, which have been explored from the 1st to the 6th APAPs, and incorporates the form of "multi-genre art" or "pluralistic art" where convergence and consilience intersect into the public art of today. In other words, it features various genres of public art in outdoor and indoor spaces, including not only the familiar genres of public art as "art as a place or art in a place" but also content-oriented community art genres that involve the viewers as main producer of artworks, such as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conceptual art that would be classified as New Genre Public Art as defined by Suzanne Lacy (1991).

In this way, APAP7 encompasses all forms of public art, not only hardware-type public art that is installed in spaces, but also software-type public art that takes place in spaces, and seeks to realize the ideal of public art that not only is created for the

public, but also is created by the public.

Fourth, APAP7 contents are curated to practice **cultural democracy and artistic democracy**.

An overview of this approach was already provided in the second subject term "you" of the Chapter II "Theme overview" and in Chapter III "Project Composition,"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longitudinal composition in terms of time. In particular, the pre project and post project that take place before and after the main project, respectively, highlight this approach to content curation for practicing cultural democracy and artistic democracy.

The main project also features the curation of various contents that involve the audience in voluntarily completing works with participating artists. Examples of these include the "Art Library," a program that combines reading, relaxation, and program participation, and the "Art Salon," which connects various community programs.

In addition, "Academic Conference"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Lecture Program", "Tour Program", and "Artist Program" provided by APAP7 as concurrent events are also designed, in many parts, to engage citizens as active participants and subjects rather than mere recipients. Notably, the Lecture Program provides a customized lecture format in which the lecturers visit local colleges to meet the viewers, instead of inviting audiences to lectures, to increase the public's voluntary participation. The "Tour Program" offers various types of exhibition tours guided by artistic directors and docents, promoting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V. Epilogue

Let us conclude by revisiting the important concepts and features of APAPs discussed in this article. Public art, since it was first discussed in *Art in a City* by John Willett in 1967, has expanded its discourse and landscape through a variety of practical endeavors, to include the New Genre Public Art movement advanced by Susan Lacey in 1991, and urban design, content art, appropriation, and local regeneration today.

This year's APAP7 will not only study the many public art discourses that have emerged to this day, but also will build on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APAPs, reflect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m, and aim for a forward-looking public art project that experiments with improvement and sustainability. To this end, APAP7 presents not only a form of public art that reinterprets the history and culture of Anyang, but also a public art that explores "new imaginary spaces in the city" transcending the physical spaces of the city under the theme "Zone 7 – Your Imaginary Space." To put it briefly, APAP7 unravels themes related to imaginary spaces outdoors, indoors, and online, and showcases "productive imaginations" built on what has come before while creating "something new."

Some of the main features of APAP7 include:

- Experiments with and expands on the controversial discourse of public art by introducing the first large-scale indoor exhibition in APAP history by renovating the

form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which were left idle and closed to the public for 81 years;

- Promotes continuous audience participation and openness to the public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vent through the sequential organization of "Pre Project - Main Project – Post Project";
- Experiments with various forms of public art and revitalizes local art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artists;
- Pursues "cultural democracy" and "public art projects for all and by all" to expand civic participation and promote barrier-free programs accessible to vulnerable groups;
- Expands the scope of APAP through various types of MOUs and collaboration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sponsorships; and
- Raises awareness of APAP by diversifying promotional activities online and offline.

Of course, we cannot attribute all these features to APAP7 alone; rather, these are some of the features that have been identified from the process of continuing and building on the many achievements of APAP so far.

It is a challenging task to put the ideal discourse of public art into practice in the real world; it requires us to reassess our approaches and tactics for almost every detail of the work. Every member of the APAP7 staff has worked so hard for this year's project, and all that remains is to carry out and complete it in our desired way. APAP7, which has been planned and presented under the theme of "Zone 7 - Your Imaginary Space," now awaits an up-front and thorough evaluation from the public with a humble heart.



-